한기주 "자신감 UP"

KIA, KT와 시범경기 8-1 승

1631일 만의 선발 등판
4.2이닝 2피안타 무실점

KIA 한기주가 1631일 만의 선발 등판에서 4.2이닝 무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됐다.

KIA 타이거즈가 22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t와의 시범경기에서 타격 상승세를 이어가며 장단 11안타로 8-1 승리를 거뒀다.

앞서 가동됐던 선발진에는 없던 이름, 한기주가 선발로 나섰다. 한기주는 4.2이닝 2피안타 2사사구 2탈삼진 무실점의 피칭으로 승리투수가 됐다.

1회 1사에서 2번 이대형의 땅볼 때 3루수 이범호의 실책이 나오면서 주자를 내보낸 한기주는 마르테를 중견수 플라이로 처리하며 투 아웃을 만들었다. 김상현의 안타에 이어 박경수의 유격수 땅볼로 실점 없이 1회를 넘겼지만 초구가 모두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났다. 2회에도 시작과 함께 볼넷을 허용했고, 3회에도 두 개의 탈삼진은 기록했지만 초구 승부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도 노련하게 경기를 풀어가면서 홈을 허용하지는 않았다. 선두타자를 내보낸 2회 포수 백용환의 도루저지로 도움을 받았고, 4회에는 더블 플레이로 세 명의 타자만 상대를 했다. 그리고 한기주는 두 번째 볼넷을 기록한 5회, 중견수 플라이와 우익수 플라이로 투 아웃을 만든 뒤 최영필과 교체됐다. 이날 한기주는 70~75개의 투구수를 예정하고 등판했다. 4회 투아웃까지 75개의 공이 기록되면서 한기주의 임무가 4.2이닝에서 끝났다.

한기주의 선발 등판이 선발진의 변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김기태 감독은 "144경기를 치르다 보면 여러 변수가 생긴다. 여러 가지 준비 차원에서 한기주의 등판을 봐주면 좋겠다"고 한기주의 선발 기용에 대해 설명했다.

한기주 선발은 144경기라는 장기 레이스를 위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가동된 시험카드다. 한기주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즌을 앞두고, 좋은 페이스로 새로 출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던 선발 등판이다. 부상 복귀 후 선발 경험은 있다. 한기주는 지난 시즌 퓨처스리그에서 선발로 등판해 승리투수가 되기도 했었다.

한기주는 "지난해 2군에서도 선발로 뛰어봤기 때문에 선발 등판이 낯설지는 않았다"면서 "마운드에 오르기 전 빠르게 승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올라갔는데 경기 초반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지 못하면서 애를 먹었다. 하지만 수비수들의 도움으로 빨리 안정을 찾았다"고 말했다.

초구 승부라는 과제는 남겼지만 올 시즌을 긍정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좋은 피칭이었다. 한기주의 이날 직구 최고 구속은 144㎞를 기록했다. 21개의 공을 스트라이크 존에 넣었고, 볼은 13개였다. 또 슬라이더(131㎞·21개)와 포크(130㎞·18개)로 타이밍을 뺏었다. 무엇보다 아프지 않고 시즌을 차근차근 준비해나가고 있다는 부분에서 자신감을 얻기에 충분했다.

한기주는 "구위와 변화구, 게임 운영 등 전반적으로 모두 만족할 만 하다. 갈수록 자신감이 생기고 있다. 보직은 어디든 자신이 있다. 어디에 가든 역할을 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언급했다.

2011년 10월4일. 광주 SK전 이후 1631일 만의 선발 타이틀. 정규 시즌도 아니고 선발 어필을 위한 자리는 아니었지만 한기주에게는 1631일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던 하루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2일 오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6 타이어뱅크 KBO 리그' 프로야구 시범경기 KIA 타이거즈와 kt 위즈의 경기에서 KIA 한기주가 투구를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친정팀 찾은 조범현 kt 감독

"올해 KIA 선발 좋으니 잘 할것"

kt 조범현 감독에게는 여전히 마음이 가는 친정팀이다.

조 감독은 22일 KIA와의 시범경기를 위해 익숙한 광주를 찾았다. 경기 전 덕아웃에서 취재진과 자리를 하던 조 감독은 "경기장이 달라졌다고 하던데 어떻게 바뀌었느냐?"며 질문을 했다.

KIA는 올 시즌을 앞두고 챔피언스필드 관람석와 경기장 내부 곳곳을 리모델링했다. 취재진의 설명을 들으며 경기장을 응시하던 그는 "1루 띠 전광판 상단에 우승 앰블럼을 설치하기도 했다"는 이야기에 직접 그라운드로 나와 관중석을 올려보기도 했다.

선수단 통로에 우승 사진과 타이거즈 역대 감독 사진이 걸려있다는 이야기에 웃음을 터트린 조 감독은 KIA의 뒷문이 없다는 말에 2009년을 회상하기도 했다.

조 감독은 "당시 선발이 좋았지만 불펜에 좌완도 없고 손영민, 유동훈, 곽정철로 야구를 했었다. 선수들을 모아놓고 우리는 7회까지만 야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초반에 급하게 이야기들을 하기도 했는데 선발을 끌어쓰지 않고 6선발로 무리하지 않고 가다 보니 좋은 결과가 나왔다. 선발들이 역할을 잘 해주면서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 KIA도 올 시즌 선발이 좋으니까 잘 할 수 있지 않겠냐"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어놓았다.

제자들에 대한 애정도 빼어놓을 수 없었다. 나지완, 양현종, 윤석민, 한기주, 곽정철 등의 이름을 언급하며 몸 상태를 묻던 조 감독은 "곽정철이 몇 년 만에 야구를 하는 것이냐. 아프지 않고 잘했으면 좋겠다"며 옛 제자에 대한 마음을 표현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태극낭자, LPGA 휩쓰는데
KIA 클래식 5년째 '노터치'

24일 김세영 등 우승 도전

한국여자골프 선수들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를 휩쓸고 있지만 유독 우승이 뜸한 대회가 몇 개 있다. 그 중 하나가 2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칼즈배드의 아비아라 골프클럽(파72·6593야드)에서 열리는 KIA 클래식이다.

한국 자동차 기업이 타이틀 스폰서를 맡은 이 대회는 2010년 처음 시작해 초대 챔피언 서희경을 배출했다. 하지만 이후 5년 동안 한국 선수들이 정상에 오르지 못하며 우승 가뭄이 이어졌다.

지난해에는 한국 선수와 교포 선수들이 6개 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하다가 이 대회에서 미국의 베테랑 크리스티 커(39)에게 덜미를 잡혀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 올해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한국선수들 중에서 누가 5년 간의 우승 가뭄을 해소할 수 있을 지 관심을 끈다. 특히 이 대회가 끝나면 시즌 첫 메이저대회 ANA 인스퍼레이션이 열리기 때문에 실전 감각 조율을 위해 톱 랭커들이 대부분 출전한다.

한국 선수들은 올해 열린 6개 대회 중 4승을 쓸어담았다. 21일(한국시간) 끝난 파운더스컵에서 최다 언더파 타이인 27언더파 261타를 몰아치고 정상에 오른 김세영(23·미래에셋)은 2주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폭풍타를 휘두른 김세영이 짧은 휴식을 취하고 이어지는 대회에서 어떤 샷을 보여줄지 기대가 된다.

주목해야 할 또 한 명의 선수는 장타자 박성현(23·넵스)이다. 박성현은 미국 본토 무대 데뷔전인 파운더스컵에서 공동 13위로 선전을 펼쳤다.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도 뒤지지 않는 기량을 보여준 박성현은 이번 대회에 참가한 뒤 ANA 인스퍼레이션에도 출전할 예정이어서 그의 성적을 눈여겨 볼만하다.

올 시즌 한국 선수 중 가장 먼저 2승을 올린 장하나(24·비씨카드), 개막전 바하마 클래식 우승자 김효주(21·롯데), 세계랭킹 1위 리디아 고(19)도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파운더스컵 대회에서 컷 탈락한 박인비(28·KB금융그룹)도 명예 회복과 함께 메이저대회를 앞두고 컨디션 조율에 나선다.

/연합뉴스

KLPGA 기아차 한국여자오픈 상금 10억으로 증액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016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기아자동차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가 총상금을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액했다.

이는 KLPGA 4대 메이저 대회 중 최고 상금 규모다. 한국여자오픈을 공동 주최하는 기아자동차와 대한골프협회는 올해 개최 30회를 맞아 이같이 우승 상금을 높였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여자오픈의 타이틀 후원사인 기아자동차는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상금을 각각 6억원, 7억원으로 증액했고, 이번에 또 3억원을 늘렸다. 우승 상금도 종전 2억원에서 2억만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부상으로 기아자동차 차량도 제공한다. 우승자는 또 다음 년도 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 KIA 클래식 출전권도 거머쥔다.

KIA 클래식의 타이틀 후원사인 기아자동차가 해외 투어 진출을 희망하는 선수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같은 특전을 마련했다.

대회 관계자는 "전 세계 수많은 프로골프투어에서 내셔널 타이틀 대회의 의미는 특별하다. 대부분 해당 국가의 골프 역사를 나타내기 때문에 경쟁도 치열하다"며 "상금 인상으로 참가 선수들이 수준 높은 경기를 하도록 독려하고, 골프팬들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여자오픈은 오는 6월 16일부터 나흘간 인천 베어즈베스트 청라 골프클럽에서 열린다. 1987년 시작한 한국여자오픈은 이미림(2012년), 김효주(2013년), 전인지(2014년), 박성현(2015년) 등 스타 우승자를 배출했다.

/연합뉴스

"승리는 당연…목표는 무실점"

슈틸리케호 내일 러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7차전

슈틸리케호가 올해 첫 A매치에서 상쾌한 출발을 준비한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24일 오후 8시 안산 와 스타디움에서 레바논과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7차전을 치른다.

레바논과의 역대 전적은 8승 2무 1패다. 대표팀은 지난해 9월 열린 레바논과의 원정 1차전에서 장현수(광저우 푸리)의 선제골과 자책골, 권창훈(수원)의 쐐기 골로 3-0으로 승리했다.

슈틸리케호는 아시아지역 2차 예선에서 6전 전승으로 G조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미 최종예선 진출도 확정했다. FIFA(국제축구연맹) 랭킹 145위인 레바논은 월드컵 2차 예선에서 3승 1무 2패 승점 10점으로 G조 3위를 기록하고 있다.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크고 이번 경기가 홈에서 열린다는 점까지 감안한다면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 다만 슈틸리케 감독은 단순한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 '무실점 승리'라는 목표를 건 상태다.

슈틸리케 감독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월드컵 2차 예선에서 무패와 무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팀은 우리밖에 없다"라며 "이 기록을 이어가도록 레바논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표팀은 지난해 19차례 A매치에서 15승3무1패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특히 19경기 동안 16경기를 무실점으로 막아냈고, 실점도 단 4골에 그칠 정도로 '철벽 수비'를 구축했다.

현재 6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를 기록한 슈틸리케호가 레바논에 이어 27일 태국과의 평가전에서도 무실점으로 승리한다면 대표팀의 역대 최다 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 기록(7경기)을 경신한다.

태극전사들의 활약도 관심거리다.

지난해 안면 복합골절 이후 대표팀에서 제외된 '황태자' 이정협(울산)은 7개월만에 슈틸리케호에 복귀했다. 대표팀 공백기를 가진 이정협과 석현준(FC포르투), 황의조(성남)의 원톱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팀에서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일부 해외파 선수들이 어떤 활약을 펼칠지에 대해서도 팬들의 관심이 쏠려 있다.

/연합뉴스